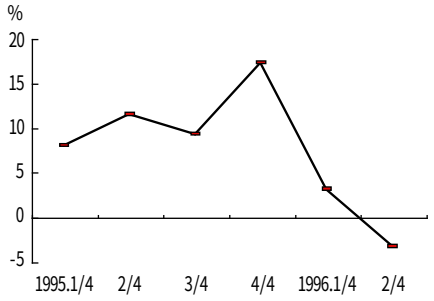
합섬원료, 국내수요 부진“ 수렁"

96년상반기 수출 38.4% 신장 14만2800톤 … 가동률 55%

국내 합섬원료 시장이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60%를 밑도는 등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관련업계에 따르면, 합섬원료의 95년 국내수요 증가율은 1/4분기 8.1%, 2/4분기 11.6%, 3/4분기 9.4%, 4/4분기 17.4% 등 연평균 11.6%로 나타난 반면 96년에는 1/4분기 3.2%, 2/4분기 -3.2%로 급락하는 등 96년들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이에따라 96년상반기 국내 합섬원료 생산은 129만8400톤으로 95년상반기 120만7200톤에 비해 7.5% 증가한 반면 판매는 95년상반기 120만2900톤에 비해 1.8% 증가한 122만4000톤에 그쳤다.
수출은 14만2800톤으로 95년의 10만3200톤 대비 38.4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합섬원료의 내수증가율 추이



합섬원료 생산현황(1996. 상반기)

(단위 : 1000M/T, %)

구 분		1995(1~6)	1996(1~6)	증감률
AN	생산	50.3	45.0	▽10.5
	내수	152.9	113.5	▽25.8
	수출	2.0	14.5	625.0
카프로락탐	생산	51.2	52.9	3.3
	내수	144.7	141.3	▽2.3
	수출	0.7	1.8	157.1
PTA	생산	819.6	889.0	8.5
	내수	828.6	840.0	1.4
	수출	87.7	116.1	32.4
DMT	생산	58.2	51.2	▽12.0
	내수	28.8	65.8	11.9
	수출	8.7	3.1	▽64.4
EG	생산	193.4	133.2	▽31.1
	내수	370.3	374.0	-
	수출	4.0	7.3	82.5

반면, 내수판매는 108만1200톤으로 95년상반기 109만9900톤에 비해 1.7% 감소해 내수부진을 수출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내수감소폭을 상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재고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
특히, 96년5월 재고량이 18만690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96% 증가한데 이어 6월 재고도 13만9600톤을 기록, 전년동기 대비 332% 증가하는 등 계속되는 재고누적에 업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이에따라 합섬원료 생산기업들은 비정기적인 Shutdown에 들어가 가동률을 96년4월 84%에서 5월 57%, 6월 55%로 낮추는 등 가동률이 60%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품목별로 보면 AN은 96년상반기 생산이 4만5000톤으로 95년동기 5만300톤에 비해 10.5% 감소했으며, 내수 또한 95년상반기 15만2900톤에서 11만3500톤으로 25.8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
AN의 내수판매량 감소가 생산감소를 웃돌고 있는 것은 연간 7만8000톤의 아크릴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태광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카프로락탐은 96년상반기 내수규모가 14만1300톤으로 95년동기 14만4700톤에 비해 2.3% 감소했고 생산도 95년상반기 5만1000톤에서 96년동기 5만2900톤으로 3.3%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이는 나일론F 생산이 96년1~5월 11만2646톤으로 95년동기 대비 3.6% 성장에 그치는 등 정체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EG는 호남석유화학이 2개의 생산라인 중 1라인의 가동을 중단했고 현대석유화학, 삼성종합화학의 평균가동률이 50%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96년상반기 생산이 13만3200톤으로 95년동기 19만3400톤에 비해 31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그러나 수출은 7300톤으로 95년 4000톤 대비 81.3% 증가해 내수부문이 95년상반기 37만300톤에서 37만4000톤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.
PTA는 96년상반기 내수가 84만톤으로 95년대비 2.4% 증가에 그쳤으며, 생산도 4.3% 증가한 88만9000톤에 머물렀다.
수출은 11만6100톤으로 95년상반기 8만7700톤에 비해 32.4%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합섬원료가 내수시장의 부진을 수출로 타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<화학저널 1996/9/23.30>